

<표준 국어문법론>의 ‘구(句)/절(節)’ 개념과 중고등학교 국어교재*

서정옥

목 차

1. 머리말
2. <표준 국어문법론>의 구성편제와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3. 국어의 ‘품사’와 ‘문장성분’의 유형
4. 국어 문법의 ‘구’와 ‘절’ 개념
5. 요즘 중고등학교 국어 교재의 기타 문제점
6. 맺음말

1. 머리말

이 글은 남기심·고영근 공저 <표준국어 문법론>(서울: 탑출판사, 1993)의 국어문법 용어 ‘구’(句, phrase)와 ‘절’(節, Clause)의 개념이 일관성 없는 문법 체계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쓴 것이다. 바로 그 저서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 나라 중고등학교 및 대학 교재는 물론이요 수십, 수백만권의 각종 참고서들에 비판없이 그대로 복사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 이 논문은 대구 한글학회 1999년 12월 정기발표회에서 발표한 글임.

데도 이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제서야 이 글을 발표하게 되어 죄송한 맘을 느낀다. 그 두 분의 저자는 다 본인이 1970년대 초의 대학시절부터 존경해 오는 은사들이요, 우리 나라의 중고등학생들과 교사들은 그 동안 몇 년간 국어교과서의 잘못된 부분을 그대로 배우고 가르쳐 오신 분들이 많았겠기 때문이다.

2. <표준 국어문법론>의 구성 편제와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우선, <표준 국어문법론>의 구성 편제를 여기에 옮겨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1편 총론

제1장 국어와 국어문법(pp.12-20,[南]): 언어와 국어/ 문법.

제2장 국어의 특징(pp.21-30,[南]): 형태적 특징/ 통사적 특징/ 그 밖의 특징.

제3장 국어문법연구의 어제와 오늘(pp.31-37)

※각장 끝에 연습문제와 참고문헌 첨부.

(2) 제2편 형태론

제4장 형태소와 단어(pp.40-57): 어절과 구/ 형태소/ 단어.

제5장 품사분류의 기준과 실제(pp.58-70): 품사분류의 기준/ 품사분류의 실제.

제6장 체언과 조사(pp.71-114): 명사/ 대명사/ 수사/ 체언과 복수/ 조사.

제7장 활용론(pp.115-170): 용언/ 활용/ 활용의 규칙성과 불규칙성/ 어미.

제8장 관형사, 부사, 감탄사(pp.171-185): 관형사/ 부사/ 감탄사.

제9장 품사의 통용(pp.186-189)

제10장 단어형성의 원리(pp.190-230): 단어 짜임새/ 파생법/ 합성법/ 한자어.

※각장 끝에 연습문제와 참고문헌 첨부.

(3) 제3편 통사론

제11장 문장의 성분(pp.234-287,[南]): 문장성분과 재료/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제12장 문법요소의 통사적 기능과 그 의미(pp.288-373): 사동과 피동[南]/ 시제와 동작상/ 높임법/ 문장 종결법/ 부정문[南]

제13장 문장의 짜임새(pp.374-424): 문장 속의 문장[南]/ 이어진 문장[南]/ 이야기.

※각장 끝에 연습문제와 참고문헌 첨부.

[붙임] 국어문법 교육론((pp.425-440): 문법교육의 성격[南]/ 문법교육의 역사와 학교문법/역대 국어문법교과서 일람.

여기서, 장(章) 또는 절(節) 뒤에 [南]으로 표시한 부분은 남기심 교수의 집필 부분이요, 그밖의 것은 고영근 교수의 집필 부분이라고 그 책 머리말에 언급해 두고 있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주로 위에서 밀줄친 부분들이다.

여기서 볼 때, ‘구’(句, phrase)와 ‘품사’(品詞, function-of-word)는 주로 단어의 구조와 기능을 다루는 <형태론> 범주에 속하는 문법 용어이며, ‘절’(節, clause)과 ‘문장성분’(文章成分, part-of-sentence)은 주로 문장의 구조와 기능을 다루는 <통사론> 범주에 속하는 문법 용어임을 알 수 있다.

3. 국어의 ‘품사’와 ‘문장성분’의 유형

지구상의 모든 언어에서 단어(單語, word)의 문법적 성질 즉 품사 기능은 크게 다음 다섯 가지로 나뉘며, 이들 각각을 좀 더 세분하면

각 언어마다 조금씩 달라진다. 이제, 국어와 영어의 품사를 세분할 경우, 그 두 언어의 품사들은 다음 표와 같이 차이를 보여준다.

(4)

<div> <div>품사</div> <div>대분법</div> </div>	체언 (體言)	용언 (用言)	수식언 (修飾言)	독립언 (獨立言)	관계언 (關係言)
국어 9품사	명사, 대명사, 수사	형용사, 동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助詞)
영어 8품사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감탄사	전치사, 접속사

국어의 품사체계와 비교해 볼 때, 영어 체언에 ‘수사’(數詞)가 없는 것은 기수사(基數詞)는 ‘수명사’로, 서수사(序數詞)는 ‘수량형용사’로 처리하기 때문이요, 수식언에 ‘관형사’(冠形詞)가 없는 것은 그것을 형용사의 수식적 용법으로써 처리하기 때문이며, 관계언에 ‘조사’(助詞)가 없는 것은 영어가 국어와 같은 ‘첨가어’가 아닌 ‘굴곡어’라서 ‘조사’와 같이 체언앞에 붙이는 후치사(後置詞, postposition)보다는 체언앞에 붙이는 전치사(前置詞, preposition)가 매우 발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접속사’는 크게 볼 때 ‘접속 기능을 하는 문장부사’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도 있으므로, 국어에서는 관례상 ‘부사’로 넣고, 영어에서는 관례상 ‘접속사’라는 품사로 따로 세우는 것이다.

한편, ‘문장성분’이란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要素) 또는 재료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그 요소가 문장에서 용언의 주체를 나타내는지 객체를 나타내는지, 혹은 서술 그 자체를 나타내는지, 그 서술을 수식하거나 보완하는지, 또는 다른 문장성분들과 독립해서 덧붙는지에 따라, ‘주어’, ‘목적어’, ‘서술어’, ‘부사어’, ‘보어’, ‘독립어’ 등의 여섯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들 여섯 가지 문장성분들 가운데서 어떤 문장이 제대로 꼴을 갖추기 위해 꼭 있어야 하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는 크게 묶

어 “주요성분”(主要成分)이라 하고, 이들에 대하여 종속적 기능을 하는 ‘부사어,보어’는 “종속성분”(從屬成分), 또, ‘독립어’는 “독립성분”이라 하여 크게 세 가지 문장성분으로 대별할 수도 있다. 예컨대, 다음 예문들에서,

(5)

ㄱ. ① 저는 학생입니다. ② 너는 보석(같은 사람)이다.

ㄴ. ① 나는 기쁩니다. ② 그는 (요즘) (매우) 아프다.

ㄷ. ① 당신은 독서를 좋아합니까? ② 예 (나는 책을 아주 좋아해요).

(5ㄱ)은 서술어가 ‘-이다/-입니다’라는 지정사(指定詞)로 된 “한자리 술어문”(one-place predicate sentence) 즉, ‘지정사文’들이고; (5ㄴ)은 ‘기쁘다,아프다’ 등 형용사를 서술어로 가진 ‘형용사文’들이며, (5ㄷ①)은 목적어를 가진 타동사 ‘좋아하다’를 서술어로 가진 “두자리 술어문”(two-place predicate sentence) 즉 ‘타동사文’이요, 또한 그 질문에 대한 정상적 답변의 하나인 (5ㄷ②)는 밑줄친 감탄사 즉 독립어 하나로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약식문’(略文)의 일종이다. 물론, (5ㄷ②)의 괄호친 부분은 그 자체로서도 ‘주어-목적어-부사어-서술어’등 네 성분 또는 ‘주어부-서술어부(또는 주어句-서술어句)’의 두 부분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이 (5)의 문장들은 모두 주어와 서술어의 연결이 한 번만 일어난다는 점에서 ‘단문’(單文,홀월,simple sentence)이라면, 다음 (6)의 예문들은 주-술 관계가 두 번 이상 일어난다는 점에서 ‘복문’(複文,겹월,complex sentence)이라 할 수 있다.

(6)

ㄱ. 네가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다.

ㄴ. 농부들은 농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

ㄷ. 그 어머니는 자식의 버릇을 몰랐음이 틀림없다.

ㄹ. 나는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ㅁ. 바람이 불고 비가 왔다.

ㅂ. 그는 실패했지만 실망하지 않았다.

- ㅅ.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들이 많이 부러졌다.
- ㅇ. 수진이가 천재임이 밝혀졌다.(명사절, 주어절)
- ㅈ. 나는 그가 정당함을 알았다.(명사절, 목적어절)
- ㅊ. 나는 철이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인용절)

4. 국어문법의 '구'(句, phrase)와 '절'(節, clause) 개념

남기심·고영근 공저 <표준 국어문법론>(1993년 개정판, 제44쪽과 376쪽)에는 각각 다음(7ㄱ, ㄴ)과 같이 '구(句)'와 '절(節)'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다.

(7)

- ㄱ. 둘 또는 그 이상의 어절이 어울려서 큰 마디가 된 말을 '구(句)'라 한다.
- ㄴ. 한 문장이 큰 문장 속의 한 성분으로서 안겨 있는 것을 '절(節)'이라 한다.

그리고, 같은 책(제236-237쪽과 376쪽)에서는 그 둘의 하위 범주를 각각 다음(8ㄱ, ㄴ)과 같이 나누었는데, 이들 중 (8ㄴ)에는 밑줄친 예들과 같이, 형태론과 통사론을 구분하지 않은 부당한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다.

(8)

- ㄱ.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관형사구, 부사구 등.
 - ㄴ. 명사절, 서술절,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 등.
- 한편, 교육부 편 <중학교 국어 2-2>(1999년판 177쪽)에는

(9)

'주어-서술어' 구조를 가지면서 다른 문장의 성분이나 재료로 사용되는 말을 '절(節)'이라 한다.

고 설명한 다음, 이어서 <중학교 국어 2-2>(1998년판 177-178쪽)에서는 위의 (6ㄱ)에 옮겨적고 밀줄친 부분을 ‘관형절’이라, (6ㄴ, ㄷ)의 밀줄친 부분은 ‘명사절’이라 부르고, 또 (6ㄹ)은 ‘인용절’이라고 불렀으며, <고등학교 국어(상)>(1999년판 276쪽)에서도 위의 (6ㅇ, ㅈ, ㅊ)과 같이 일관성 없고 불합리한 절 이름을 붙여놓고 밀줄도 잘못 그어 놓았는데, 특히 이들 중 ‘명사절’과 ‘인용절’이라는 명칭은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매우 불합리한 것들이므로, 하루 빨리 다음 (10)과 같이 시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차라리 위 (8ㄱ)의 ‘구(句)’ 개념은 품사 중심의 명칭만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므로, 앞에서 (5ㄷ②)의 설명에서와 같이 형태론 분야인데도 통사론 범주인 문장성분 중심의 명칭으로도 쓰이는 말이지만, (8ㄴ)의 각항들은 오히려 통사론 범주에만 속하는 것이므로 문장성분 중심의 용어로 바꾸고, (6)의 예문들에서 밀줄친 부분들에 대한 명칭은 현재의 중학교 교과서식 명칭도 각각 다음과 같이 이해시키거나 아예여기서 괄호친 부분까지 삭제하는 방식으로 고쳐야 바람직할 것이기 때문이다.

(10)

- ㄱ. (6ㄴ) ‘명사절’ → ‘(명사구 형식의) 목적어절’
- ㄴ. (6ㄷ) ‘명사절’ → ‘(명사구 형식의) 주어절’
- ㄷ. (6ㄹ) ‘인용절’ → ‘(인용구 형식의) 부사어절’

이것은 분명 중고등학교 국어교재 위원들이 남기삼·고영근 공저 <표준 국어문법론>(1993년 개정판, 제376쪽)에서 ‘절(節)’의 종류를 위의 (8ㄴ)과 같이 일관성 없이 호칭한 것을 아무런 비판없이 중학교 국어교재 편찬에 그대로 도입한 결과이다. 우선은, <표준 국어문법론>(1993년 개정판)의 저자들이 그 책 376쪽에 있는 현대국어 절(節)의 종류를 위의 (8ㄴ)과 같이 나누지 말고, ‘주어절, 목적어절, 서술어절, 부사어절, 보어절’ 등과 같이 문장성분 중심의 명칭으로 바꾸고, 중고등학교 국어 교재와 참고서들에서도 이렇게 고쳐지도록 해야 한다.

5. 요즘 중고등학교 국어 교재의 기타 문제점

현행 중학교 국어 교재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다음의 사항들을 들 수 있는 바, 이러한 점들은 각각 별개의 원고에서 그 해결방안과 함께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11)

ㄱ. 국어 교과서에 익힘한자로 실어놓은 기초漢字 선별의 무작위성(無作爲性) : 즉, 현행 중학교 국어 교과서(全6卷)의 중간중간에 익힘 한자로 실어놓은 글자들은 다음 [표1]과 같이 총 270字인데, 이것은 중고등학교 교육용 기초한자 1800字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분량이고, 그것도 조선일보사와 한국어문교육연구회가 주관하여 매년 두 차례 치르고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응시하여 자격증을 따고 있는 <한자 능력검정시험>의 제6급 수준에 해당하는 300字나 제5급의 500字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1>부터 <3-2>까지 漢字의 난이도나 실용빈도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배정되었으며, 심지어 어떤 글자 예컨대, '對'字는 <2-1> 제10단원 제1과와 <3-2> 제2단원 제2과에 두 번 겹쳐 나타나니, 이런 것도 고쳐야 한다.

ㄴ. 중고등학교 국어 교재 각권 부록을 더 능률적으로 활용할 필요성 : 외국어 교육보다 모국어교육이 국내에서 오히려 점점 더 약화되어 가고 현시점에서 참으로 온 국민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국어학과 국문학의 필수적 상식(예컨대, 원고지 사용법 요약, 남북한의 자모 명칭과 배열순서 비교도표, 국어사 및 국어학사연표, 국문학사 연표 등)을 적어도 여섯 가지 정도로 선별해서 각 학년 국어 교과서에 부록으로 실어야 하며, 각 등급의 익힘한자 목록도 각권 부록에 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도, 현재의 下卷에 실은 부록을 ("문장부호 규정"과 "표준어 규정"의 위치를 바꾸어서) 上卷의 부록으로 올리고, 하권의 그 자리에는 그 대신 "외래어의 한글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수록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ㄷ. 그밖에, 중고등학교 국어 교재의 편집위원 및 편집방침 개선 필요성:

항목수 학기별	5	10	15	20	25	30	35	40
1-1(총 48字)	感去過光口氣,內,代,來理,萬名木舞,復,史私死想聖省少俗孫神心,弱陽語言要用肉陰,子肚在全節定情造族重,學現兄形.							
1-2(총 42字)	各開見教,南,談道頭,老流,面,本佛,思夕仙性習失室,安養王銀恩日入,自場傳種止地,治,土,河海行湖活休黑.							
2-1(총 54字)	強建計考君權均,單對德國讀獨,領,民,發兵報保福夫富非,常相船善笑修承示識植,夜野洋友月因一,將庭衆知進,處初,判,豐,限解呼火孝.							
2-2(총 42字)	歌講晨季工空求舊,念,達都,陸,物味,法部,山設乘始食,溫容育音飲應醫益,長爭低電淨祖實,寸秋收,血和華.							
3-1(총 42字)	假間繼關歸記起,樂,堂大,壘門,房分,雪績受數是甚,顏眼藥逆誤爲,作草店調坐注證真,窓聽蟲致,宅波破,花.							
3-2(총 42字)	告究今,能,但對同動得,緣,文,變別,席昔消壽水勝時式信實,兒暗義意認,才戰題罪,次責,打統,皮,賀害鄉婚患.							
6학기 총270字	7항(歌假各問感強講開去建見景計季告考工空過觀關光教口求舊究君權歸均今氣記起) 35字, 1항(樂南內念能) 5字, 2항(單但談達堂代對大德道國都讀獨同動頭得) 18字, 3항(來領老緣流陸理) 7字, 4항(萬面名木舞壘門文物味民) 11字, 5항(錢房法變別兵報保復福本部夫富分佛非) 17字, 6항(史私死恐山想常相夕席告仙船善設雪省聖性少笑消俗續孫受數壽水修習承乘勝始是時示識食式植神信失室實心甚) 49字, 7항(兒兒顏眼暗夜野弱藥陽養洋語言逆誤溫王要用容友月爲肉育眼恩陰音飲應義意醫益認因日一入) 41字, 8항(子自作壯場將長章在才爭低全傳戰電節占定情庭淨題淨造祖調族種坐罪注重衆證止地知貴進賢) 40字, 9항(次窓責處聽初寸秋蟲取治致) 12字, 10항(打宅土統波破判豐皮) 9字, 11항(河賀學限海解害行鄉現血兄形湖呼婚火和華花患活孝休黑) 25字 등. 이상, 총 269字.							

[표1] 중학교 6학기 교과서별 의형 한자 270字的 한글표음 가나다순 배열

6. 맺음말

이 글에서 필자는 현행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구(句)’와 ‘절(節)’ 개념의 잘못된 적용을 추적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저서(남기심·고영근 공저 <표준 국어문법론> 1993년 개정판)을 비판하고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제안함으로써 현행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기를 희망하였으며, 이에 덧붙여 현행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의 또 다른 수정안도 두어 가지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교육부 1999. 중학교 국어. 1-1, 1-2, 2-1, 2-2, 3-1, 3-2. 서울:한국교육개발원.
- _____ 1999. 고등학교 국어(상·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
- 김 희 1999. 한자능력검정. 2·3급, 4·5급, 6·7급. 서울:시대고시 기획사.
- 남기심·고영근 1993. <표준 국어문법론>(개정판). 서울:탑출판사.
- 서정욱 1991. <국역 신약성서의 어휘의미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7. <국어정서법의 이론과 실제>(개정판). 대구:문창사.
- _____ 1998. <작문 및 화법의 이론과 실제>(개정판). 대구:문창사.
- _____ 1999. <성경언어학 개론>(개정판). 대구:보문출판사.
-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9. <한자능력검정용 1000字>(수정증보판), 조선일보사.